

[보도자료] 쿠팡,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 18일 개최 전국 200여 명 중소기업인 모인다

2023. 9. 15.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대만 수출용 비행기에 태울 로켓직구 상품들을 출고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만 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통관, 포장, 로켓배송, 재고관리, 고객센터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 양재동서 쿠팡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 사업설명회 개최 수출 상담도 진행
- 주요 중소기업단체 및 각 지자체 관계자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인 참석 예정
- 쿠팡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데 기여할 것”

2023. 09. 15. 서울 - 쿠팡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대만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쿠팡이 구축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편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융합센터·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참가신청을 한 전국 중소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쿠팡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국내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만 로켓배송’과 ‘대만 로켓직구’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쿠팡의 대만 진출 프로세스와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담부스에서 쿠팡 담당자에게 수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출 조건과 입점 절차 등을 추가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로켓배송 및 로켓직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6개월만에 쿠팡 앱이 대만 현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앱 1위에 오를 만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쿠팡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물류, 통관, 번역, 고객센터, 마케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미 로켓배송에 입점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쿠팡이 대만에서 파는 수백만개 제품의 70%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때문에 대만 로켓 서비스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이 아직 대만에 진출한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수출 업체들 가운데 대만 시장에 안착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쿠팡의 대만 진출이 수출 길을 열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 좋은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쌀과자 제조사 내아이에 관계자는 “대만 쿠팡에서 3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해 판매액이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차류 가공업체 티젠의 김병희 대표는 “쿠팡을 통해 발효차의 일종인 ‘콤부차’로 차의 본고장인 대만 시장을 공략 중”이라며 “쿠팡의 ‘원스톱’ 대만 로켓배송 수출은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중소기업들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쿠팡 로켓배송 및 로켓직구가 대만 고객들과 국내 중소기업들을 연결해주면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한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